□97학년도 입학식 및 환영잔치 여론조사

# 신입생 54.6% 대체로 만족

## 초대가수공연 가장 선호

## 뒷풀이 장소없어 아쉬움 남아

97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큰잔치가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입학식과 환영식의 총괄적인 느낌'에 대한 질문에 54.6%(2백18명)가 대체로 만족이라고 평가했다. 각단대별로는 '대체로 만족'이 문리대가 64.1%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한의대는 43.3%정도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입학식 교외 실시'에 대한 질문에는 '교내에서 실시하자'는 내용이 약간 우위를 찾이했으나 '환영식을 고외에서 하면 입학식도 교외에서'와 '장소는 문제되지 않는다'등의 의견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 장소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학식 행사가 목적에 적합했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7%(2백64명)가 '그저 그렇다' 혹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해 본래 입학식이 환영식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6.3%(1백45명)가 초대가수공연을 지적해 대학행정안내를 지적한 2.2%(9명)로 극심한 대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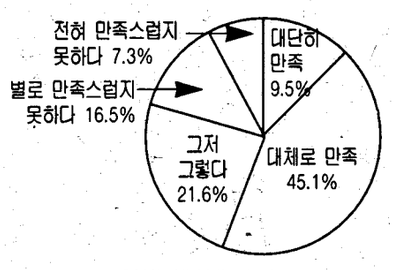
'그 외에 인상에 남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응원단시범 10.5%(42명), 동문축하메세지 10.0%(40명), 태권도부 9.7%(39명) 순이였다.

그 밖에 입학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로는 간결하고 빠른 진행, 간식 제공, 안내장 사전 배부 및 홍보강화, 단대별 좌석배치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특히 신입생들이 행사 후에 선후배들과 모일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행사가 끝난 늦은 시간에 다시 학교로 모여 뒷풀이를 하는 등 행사진행에 개선할 점이 많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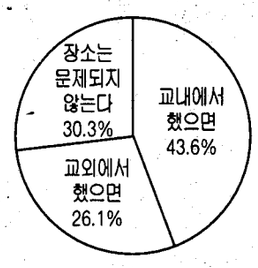
여론조사시 나타난 신입생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신세대답게 장엄하고 지루한 행사진행보다는 빠르고 강렬하며 자극적인 것으로의 선호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행사에 대해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나 초대가수 공연과 응원단 시범등 흥미위주의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입학식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데는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최현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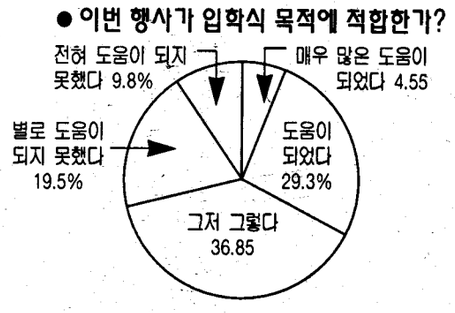
●'97학년도 입학식 및 환영 큰잔치에 대한 총괄적인 느낌은?




● 입학식 교외 실시에 대한 느낌




● 이번 행사가 입학식 목적에 적합한가?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khunews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khunews

### 시끄러운 풍물소리 수업시간 피해야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분주한 모습들이 참으로 보기 좋게 느껴진다.

학내 인도에 책걸상을 마련해 놓고 지나가는 신입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동아리를 소개하고 입회를 권유하는 모습들 그리고 대자보를 여기저기 붙이는 모습들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가끔 여기저기서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

바로 풍물패의 꽹과리소리, 그리고 각단대에서 행해졌던 시무식이다.

그러한 소리들 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꽹과리소리, 북소리, 징소리들로 학내는 마치 굿판처럼 되 버린다.

물론 꽹과리나 북등이 모임에서 흥을 고취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데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본인도 사물놀이의 전체적인 형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끼리 학내에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시무식같은 경우야 굿판이 벌어지게 된다면 서로 약간만 양보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시무식은 그렇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강의실 바로 앞에서 북치고 꽹과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신입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 일 수도 있으나, 몇시간 후 혹은 바로 내일 자기가 강의실에 들어가면 똑같은 피해자의 입장이지 않은가?

강의실 앞보다는 노천극장 혹은 대운동장을 이용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생각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한다.

김 지 현
〈영교 2〉

### 편리한 마을버스 보행자 안전 우선돼야

학교를 오기 위해 회기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마을버스이다. 회기역과 학교를 꾸준히 왕복하는 마을버스는 학생들의 든든한 다리가 되고 있다. 시간도 단축되고 요금도 그리 부담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마을버스가 시간을 더 단축시킬려고 하는지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다. 학교 정문에는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은 옆 길가로 다니고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그 길의 틈도 주지 않은 채 다니고 있다. 그럴때면 학생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운전자를 바라본다.

물론 버스안의 사람들이나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오고갔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운전기사들도 손님을 빨리 태워다 주기 위해 그런 옆길을 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길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도 조금은 해줬으면 한다.

그 길을 다니는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장난을 치며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에게 정신을 팔고 있을 상황에서 마을버스가 무작정 그 길로 오게 되면. 정말 큰사고가 날 것이다.

1분 1초라도 빨리가려다 학생들이 다치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정문앞에 택시와 자가용이 너무 많이 있어 운전기사들이 짜증과 화가날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느긋하게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김 동 환
〈문리대 물리 2〉

### 함께 사용하는 매점 깨끗이 사용 당부

학생들의 편안한 쉼터.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학생휴게실인 매점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 대다수가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찾아간다. 간혹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기도 하지만 여하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곳 중 하나가 매점이다.

공강시간에 할 일이 없을 때 친구들끼리 마음껏 먹으며 대화할 수 있는 곳 후배가 선배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면 대부분 가는 곳이 매점이다.

그러나 매점이 학생들을 만족시켜 주지만 학생들은 매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매점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자기가 먹은 라면은 자기가 치워야 하지 않을까.

쓰레기통 주변도 너무 지저분하다. 분리수거를 위해 쓰레기통은 놓여 있지만 어디에다 무엇을 넣어야할지 구분이 가질 않는다.

기다리는 학우가 매점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자기가 매점에 들어갔을 때 지저분하다면 기분이 어떨까.

매점을 자기의 집처럼 깨끗이 사용한다면 지저분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않치우면 누군가 치우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먹은 음식은 책임지고 깨끗이 치워야하겠다.

김 종 기
〈유전 2〉

### 화장실 표지판 파손 남녀구분없어

내가 속해있는 문리대는 서관 6층에 위치해 있는데, 각층과 층사이의 계단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언제부턴가 지나다니다 보니 이상하게도 남자화장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그곳은 밖에 써있는 것과는 달리, 남자화장실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필자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밖에는 '남자화장실이다'라 분명히 쓰여있지 않은가? 각층을 거쳐 올라가며 살펴보니 여자화장실이라고 써있는 곳은 단 한곳뿐 나머지는 아예 없거나 남자화장실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주위의 친구들도 같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학교측은 작지만 세심한 주의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한다.

김 상 윤
〈생물 2〉

## 朔風

## XXX · · ·

얼마전 한 방송국에서 다시 상영된 X파일이라는 외화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 외화는 상영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하니 가히 X파일의 영향력은 전세계적이라고 할만하다.

우리가 재미의 단계를 넘어서 심취하리만큼 집중하는 이 외화는 세기말적인 소재와 분위기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X라는 알파벳에 대해서 무한정의 환호를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X라는 알파벳을 통해 우리는 머릿속으로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신비함, 무지, 미지의 세계, 새로움, 검정색, 완결성, 종말 등등.

다른 어떤 이미지보다도 강렬함을 지니고 있는 X라는 알파벳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현실에선 느낄수 없는 짜릿함과 내면의 잠재의식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또다른 모습들을 일깨우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 속에서 근근히 연명해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X의 이미지에 지나치리 만큼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 사이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듯하다.

때로는 X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몽상가로서 규정되어 격리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홍수처럼 쏟아져들어오는 정보량과 사회에서 개개인 각자에게 요구하는 많은 의무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피하는 또다른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인 것이다.

X로선 규정되는 세계는 이제는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역할까지 한다. 더 이상 현실세계에서는 견뎌낼 자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도피처로서 작용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X의 세계를 제외하고는 마음놓고 편안히 쉴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 개개인의 상상력으로 구성되는 X의 세계에서 우리 개개인은 사회, 정보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비록 현실에선 무기력하게 소외되고 있지만 우리들 개개인이 X의 세계를 마음 한구석에 구축하고 있다면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할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외계인이 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하는 X의 세계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흥미와 느낌만으로 구성된 개인의 작은 안식처일 뿐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X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다.

개개인의 개성과 권리를 아주 쉽게 유린하는 작금의 현실 사회와 현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X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

주변인 보다는 외계인이 되기를 오히려 선호하는 우리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X라는 상상력의 날개를 마음껏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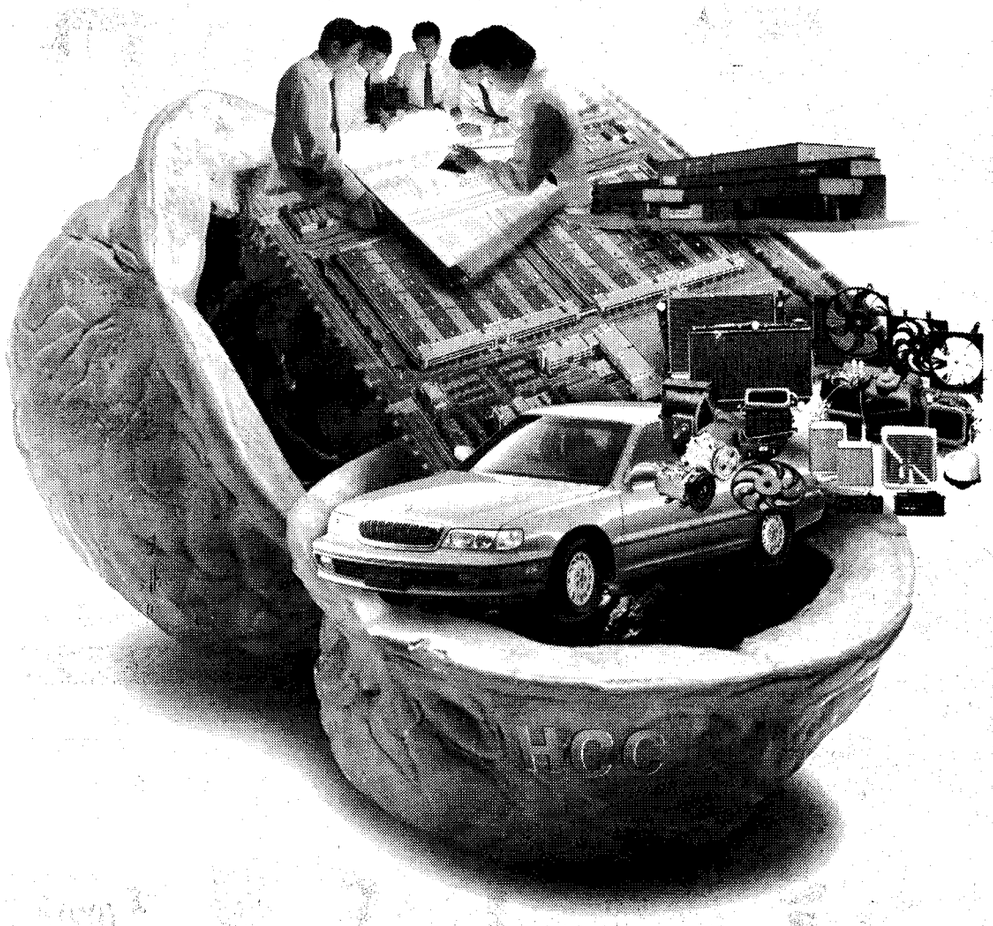
〈吳〉

##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작은 정성이 미래경희를 예감합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97.3.17~3.21)

△서울은행(은행장 장만화)
경희사랑 저금통 제작지원 1천5백만원 상당
△김광식(총무과 경비조장, 3차분) 2만원(영구월납)
△강호원(수원관리과) 60만원
△장정훈(수원관리과) 60만원
△장영우(수원관리과) 60만원
△최왕규(수원관리과) 60만원
△권오탁(수원관리과) 60만원
△김성기(수원관리과) 60만원
△김병은 外(신한방5층 간호사일동) 6만원
△김호영(총무과) 50만원
△유태학(총무과) 50만원
△김정만(경영대학원 교수, 2차분) 1억원
△김상혜(동남유통 대표이사, 법학11회 총동문회 부회장, 사업분과위원장) 1천만원
▲경희사랑 저금통 기탁
△조용호(서울 학생처장, 의학과 교수) 14만5천원
△정의철(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7만3천5백30원
△박경아(정치외교학과 96년 졸) 6만7천3백70원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국제경쟁력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라공조,
이제 21세기 세계 5대 공조업체로 도약합니다.

창업 10년만에 세계 10대 자동차 공조업체로 성장한 한라공조는
이제 자동차업계를 짊어질 세계 5대 공조업체로 21세기를 열어가겠습니다.

1986년 만도기계와 미국 포드사가 합작으로 설립한 한라공조는 창업 10년만에 명실공히 세계 10대 공조업체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자동차용 라디에타 및 열교환기 등을 생산,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업계에 공급해 온 한라공조는 이제 그 무대를 세계속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 방안으로 **89년에 캐나다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96년에는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로 태국 및 포르투칼 현지법인을 설립,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 현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눈부신 도약은 유능한 인재와 우수한 기술, 그리고 고객우선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세계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화를 이룩한 땀의 결실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술과 품질로 국제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여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짊어질 세계 5대 공조회사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HCC 한라공조주식회사

漢拏 한라중공업(주) · 만도기계(주) · 한라건설(주) · 한라시멘트(주) · 한라공조(주) · 한라해운(주) · 한라자원(주) · 한라콘크리트(주) · 한라창업투자(주) · (주)캄코 · (주)마이스터 · 한라정보시스템(주) · 한라펄프제지(주) (주)한라일렉트로닉스 · 한라산업기술(주) · 마르코폴로호텔(주) · 학교법인배달학원